

‘자녀 체벌금지 법개정’ 반대 47%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은 반대, 여성은 찬성이 높았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은 반대,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CBS 의뢰로 실시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7%로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4.3%였다.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 내인 2.7%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

반대 여론은 남성 40대·60대 이상, 충청권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서울,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다수였다. 찬성은 여성과 20대, 대구·경북(TK), 경기·인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왔다. 30대와 50대,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구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반대 62.2%, 찬성 32.5%였고 여성의 경우 각각 31.9%, 55.9%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반대 50.0%, 찬성 33.6%)과 40대(50.8%, 45.7%)는 반대가, 20대는 반대 38.0%, 찬성 54.2%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반대 65.0%, 찬성 35.0%)과 광주·전라(52.2%, 44.0%), 부산·경남(51.6%, 34.1%), 서울(47.7%, 41.8%) 등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반대 42.0%, 찬성 54.3%)과 경기·인천(38.7%, 52.1%)은 찬성이 다수였다.

정치성향 및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반대 31.4%, 찬성 62.7%)과 진보층(38.7%, 57.0%)만 찬성이 높았고 보수층(61.4%, 31.8%)과 한국당 지지층(62.9%, 24.3%), 바른미래당 지지층(60.4%, 27.0%), 무당층(55.4%, 33.9%), 정의당 지지층(55.0%, 41.9%)에서는 반대가 나왔다.

아울러 30대(반대 47.1%, 찬성 44.4%)와 50대(46.1%, 48.5%), 중도층(44.5%, 47.0%)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최근 정부는 민법 915조 개정을 추진 중이다. 915조는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

찬성, 44.3%...오차범위 2.7%p 차이

남성은 반대 여성은 찬성 여론 높아

민주당·진보 지지자 빼고 대부분 ‘반대’

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친권의 효력 중에서도 징계권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

인 8808명 중 509명이 응답해 7.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부산(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통계를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뉴스스



빗방울 맞힌 식류꽃 비가 내리면서 연일 이어지던 더위가 한풀 꺾인 27일 오후 대구 중구 동인동 국제보상운동 기법공원에서 활짝 핀 식류꽃에 빗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오월민주여성회 “5·18진상조사위 위원 교체는 정치거래”

더불어민주당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후보였던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교체한 데 대해 ‘오월민주여성회’가 반발하고 있다.

오월민주여성회는 2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논리를 받아들여 합당한 공모과정을 통해 추천된 5·18 피해 당사자인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교체한 것은 반민주주의적 정치 거래”라고 비판했다.

이윤정 교수는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의 원칙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증언을 통해서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월민주여성회는 “광주학살 세력들이 자행한 국가권력 탈취와 계엄군들의 천인공노할 살해·성폭행 범죄들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결정

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윤정 후보에 대한 조사위원 자격을 즉각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윤정 후보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임명을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위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이윤정 후보를 서애연 변호사로 교체했다.

최남규 기자

전남지역 강한 비바람에 피해 잇따라

전남지역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27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전남 13개 시·군에 내리진 강풍주의보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신안군 가거도는 순간 최대풍속이 34.9%를 기록했다. 흑산도 30%, 여수 26%, 진도 조도 21.6%,

영암 학산 21.4%, 거문도 19.4%, 여수산단 18.3% 등지에도 강한 바람(순간 최대풍속 기준)이 불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강수량은 진도 105mm, 보성 95.5mm, 순천 88.5mm, 완도 86.7mm, 신안 안좌도 66.5mm, 여수 58mm, 목포 51.5mm, 광주 25.1mm 등을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24mm의 비가 쏟아

진 진도군 고군면에선 모내기를 마친 논 5ha가 침수됐다. 이날 오전 10시께엔 순천시 별량면 주택 마당이 침수돼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앞서 오전 9시께 강진군 도암면의 가로수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여수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따른 신고간판 흔들림, 현수막 낙하 의심 신고 등이 7건 접수됐으나 재산·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정환 기자

美 하와이서 상어 공격으로 60대 남성 사망

미국 하와이에서 수영하던 60대 캘리포니아 남성이 상어에 물려 숨졌다.

28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25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의 카아나팔리(Ka'anapali) 해변공원 근처에서 해엄하던 65세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구조대에 의해 끌어올려 졌다고 보도했다.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목격자 엘리스 켈러는 “남자의 배에 피가 묻어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왼쪽 다리의 무릎 아랫부분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도 마우이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사람이 상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의 상어 공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상어 공격이 66건 발생했다. 상어 공격으로 사망할 확률은 370만명 중 1명꼴이다.

브라질 교도소서 소요 발생 최소 15명 사망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의 한 교도소에서 28일(현지시간) 재소자들 사이에 소요와 충돌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브라질 당국이 밝혔다.

아마조나스주 교정 당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정오께 주도 마나우스에 있는 아니시오 요비 교도소 재소자들 간에 충돌이 시작돼 치안병력이 출동했지만 소요가 가라앉기 전 15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미르쿠스 비니시우스 올리베이라 데 아베이다 교정국장은 상황이 이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경찰 헬기가 교도소 상공을 순회하며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요로 탈출한 재소자들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교도소에서는 2017년 1월에도 큰 소요가 일어나 68명이 사망했다.

베트남, 아프리카돼지열병에 170만마리 도살

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한 여파로 170만마리가 도살됐다.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돼지의 5%가 도살됐다고 밝혔다. 현재 ASF가 퍼진 지역은 42곳이며 앞으로 감염 지역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미와 그에 따른 메콩강 델타(삼각주) 지역에서의 흡수가 ASF 확산을 악화시키고 도살한 돼지의 매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메콩강 델타는 베트남 남서부 곡창지대를 일컫는다.

베트남의 돼지농장이 밀집한 동 나이 성에서는 당국이 감염 돼지의 도살에 반발한 농부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당국은 감염된 돼지고기를 내다 파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SF는 지난해 8월 중국 북부 랴오닝성의 한 농장에서 처음 발병한 후 9개월도 못 돼 중국 내 31개 성·직할시·자치구로 모두 퍼졌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치사율 100%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DR콩고 호수서 선박 침몰 최소 30명 사망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호수에서 선박 한 척이 침몰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실종됐다고 당국이 밝혔다.

시몬 음모 웹바 이농고 시장은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마이-은뎀베 호수에서 전날 침몰한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대부분 교사들이라고 말했다.

웹바 시장은 탑승객들은 육로 교통수단이 불편해 배를 이용해 월급을 받으러 가던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리들은 수백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 80명의 승객들은 구조됐다.

선박은 지난 25일 오후 약전후 속에 침몰했다.

지역광고관리위원회·정몽헌기념사업회
湖南新聞
전화 062|224-5900
팩스 062|222-5548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